

지역 소식통

고창반딧벌여행, 사전신청

13일 오전 10시 오픈

고창군이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고창반딧벌여행' 이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2차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2차 사전신청 여행기간은 5월14~6월30일까지며, 고창반딧벌여행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changtrip.co.kr)를 통해 진행된다.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차 사전신청보다 확대된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는 사전신청을 마친 뒤 고창군 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업소, 식당, 카페, 체험시설 등 관광 관련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다시 모바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청년은 최대 14만원, 단체는 최대 20만원, 가족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미디어아트관

1894달하루 입장료 환급

정읍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 유료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환급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유산을 빛과 영상으로 구현한 문화 관광 기반(플랫폼)인 해당 전시관의 환급 사업은 미디어아트 관람과 지역 내 소비를 이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관의 거주자 중 할인을 받지 않은 유료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정상 입장료를 결제시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령별 입장료는 어른 1만 6000원, 청소년 1만 2000원, 어린이 1만원이다. 이에 따른 환급 금액은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관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혁명 도시 정읍' 위상 높였다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성료... 511인 그날의 함성·진군행렬 재현 '감동'

정읍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기념제는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대승을 거둔 역사의 현장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다시, 사람이 하늘이다 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펼쳐졌다. 동학의 평등 정신과 자주독립 의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기념제의 백미는 첫날인 9일 오후에 펼쳐진 '그날의 함성(511 기획 공연)'이었다.

정읍 시민과 청소년, 지역 예술인, 읍·면·동 농약단 등 511명으로 꾸민 진군 행렬은 당시 농민군의 기개를 재현해 환토현 전적을 가득 메웠다. 특히 행렬 끝에 이어진 용오름 공연과 선언문 낭독은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과 하나가 돼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이끌어내 장관을 연출했다.

기념제 기간 내내 이어진 전국 단위 대회들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동학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전국 청소년 토론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해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 댄스 경연 대회와 농악 경연 대회는 승리의 기쁨을 역동적인 몸짓과 소리로 승화시켜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대동단결의 모습을 보여줬다. 마지막 날 열린 사생대회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도화지 위에 혁명의 정신을 저마다 색깔로 그려내 교육적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 곳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의 장이었다. 옛 말목장터를 재현한 체험 공간은 먹거리와 볼거리로 가득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달빛장터'와 밤하늘을 수놓은 야간 경관 조명 '1894로의 여행'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겼다. 여기에 손태진, 조계즈, 먼데이키즈, 경서, 허각 등 유명 출연진의 축하 공연과 정읍시립국악단의 특별 공연 '천명'은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위대한 유산"이라며 "앞으로 혁명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정읍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착공 현장 점검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준수 당부

부안군은 11일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이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착공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정화영 권한대행은 시공사인 대일이앤씨(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곳곳을 살피며 가설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안전 장비 확보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변산면 마포리 일원에 총 1221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18층 규모의 골프장과 67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부안의 관광 인프라가 크게 확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지오드림' 운영기관 최종 선정

'We Do It! 위도 Geo-STEAM' 프로그램 이달부터 본격 가동

부안군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주관하는 지질공원 교육지원 사업인 '지오드림(Geo-Dream)'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오드림은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과 도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의 자원을 활용한 지구과학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 교육 서비스다.

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위도중학교와 협력해 'We Do It! 위도 Geo-STEAM'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는 지리적 여건으로 교육 혜택에서 소외됐던 위도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지질·생태 교육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에너지, 해양, 자연, 인문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위도 내 7개 지질명소를 직접 탐방하는 현장 체험과 전문가 초청 특강을 병행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청보리밭 축제, 23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축제장에 53만4천명 방문... '주차요금 전액 환급제' 로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지역 활성화 특목

고창군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23일간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에서 펼쳐진 '제2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를 주제로 열렸다. 약 63ha에 걸쳐 출렁이는 초록 물결 속에서 방문객들은 보리밭 사잇길 걷기, 감성 포토존, 트랙터 관람차,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특히, 5월 1~5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대거 몰리며 축제장에 한층 활기를 더했다.

23일간의 대장정을 함께한 방문객은 약 53만4천명으로, '경관농업 1번지' 고창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축제장을 찾은 상당수의 관광객은 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 선운산 도립공원, 모양성(고창읍성) 등 인근 명소로 여정을 이어가며 지역 관광 경제 전



반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주차요금 전액 환급제' 역시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방문객이 낸 주차요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축제장 먹거리 부스와 지역 상 소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고창군은 축제 기간 교통 혼

잡 최소화해 위해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셔틀버스를 추가 운영하는 등 현장 운영을 강화했다.

주요 구간 일방통행 체계 운영과 안내 인력 확대 배치 등을 통해 방문객 이동 편의와 안전관리에 집중했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추가 확충해 더욱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에 힘썼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남양부직포 애로사항 즉각 조치

미세 유충 유입 차단 위해 공장 인근 수목 정비... 맞춤형 행정 눈길

정읍시가 최근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한 (주)남양부직포의 고충을 접수하고 공장 주변 수목에 대한 대대적인 전지 작업을 완료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조치는 공장 인근 수목이 벌레와 유충의 서식지가 돼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관내 입주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소통 행정'을 펼치며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주)남양부직포는 의류용·화장품용 부직포부터 고품질 필터 원단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특히 미세한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원단은 제조 과정에서의 청결도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 미세한 유충이나 벌레가 제품에 유입되면 해당 생산분을 전량 폐기할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을 점검한 뒤 즉시 전지 작업을 시행해 해충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 1998년 문을 연 (주)남양부직포는 경기도 안산에 본사를 둔 환경 필터 생산 기업이다. 최근 제3일반산업단지에는 협력 기업 크린앤사이언스 옆으로 공장을 옮기며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세계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설비 증설 투자를 계획하는 등 정읍공장을 미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